

빛나는 업적을 기리며

— 박태준 박사를 추모하면서 —

나 운영

거쉬인과 흥난파는 동갑이요, 코플랜드와 박태준도 동갑이다. 흥난파는 43세에, 안익태는 59세에, 현제명은 6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박태준은 박윤근(1891~)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최장수를 누린 셈이다.

이상준, 김형준, 김인식, 흥난파가 신문내교회(새문안 예배당)의 집사로 한때 성가대를 봉사했던 것과는 달리 박태준은 남대문교회 성가대를 30년간 지휘했다.

송실대학 재학 시절 Eli M. Mowry에 이어 박윤근에게 교회음악과 합창을 배웠던 박태준이 스승보다 한발 앞 서간 데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거목巨木의 빛나는 업적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우리 음악계의 활동 무대가 서울인데 비해 고인은 8·15전까지는 대구·평양에서 활약했었기 때문에 나는 사우(동무생각) 미풍·물새 발자욱·오빠 생각·가을바람이지·슬픈 밤 등을 애창해 오다가 '45년 오라토리오 협회 합창단 창립공연 때 처음으로 고인을 뵈었고, '49년 여름 연희대학교 주최 <교회음악 지도자 강습회>때 강사 초청을 받아 Lutz부인과 함께 일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55년 연희대학교 신과 대학 종교음악과 창설 이래 20년간 친교를 나누었으니 남달리 감회가 깊다.

선생은 교회음악의 대가요 합창운동의 총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널리 불리어지는 성가 합창곡 중 대부분이 선생의 번역가사로 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오라토리오 합창단 정기공연을 통해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십자가상의 죽음」, 「제2미사 D단조 미사」, 「사계」, 모차르트의 「레퀴엠」, 「대관식 미사」, 「미사 브레비스」, 베토벤의 「장엄 미사」, 「C장조 미사」, 멘델스존의 「엘리아」, 「성바울」, 바흐의 「B단조 미사」등을 지휘했고, 한편 작곡집 『중중때때중』('29), 『양양범버궁』('31), 『물새발자욱』('39), 『무궁화는 피고피고』('52), 『박태준 작곡집』('75)과 『초보화성학·화성학』('55), 『교회음악사』('74), 『찬송가학』('77)을 번역 출판하였다.

특히 선생은 계성고교·송실전문·서울여전을 거쳐 25년간 연세대에서 후진을 양성했는데 오늘날 윤학원·최훈차·김홍경·이관섭·안재성·김명엽 등등 촉망받는 지휘자가 모두 선생의 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볼 때 마음 든든하다.

실로 선생은 우리나라 음악계의 장로요, 증인이요, 은인이다.

<계간「교회음악」, '86 가을 겨울호>